

내포신도시 첫 기업유치 성공

- 우수AMS(주), 2016년까지 335억 투자 생산라인 신설
- 바스프·제이텍 등은 내포신도시 10km 반경 내 입주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첫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안희정 지사는 12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종인 우수AMS(주) 대표, 신우성 한국바스프(주) 대표, 장두훈 (주)제이텍 대표, 정규식 미원화학(주) 대표, 유영균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준원 공주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최승우 예산군수 등과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이들 4개 기업은 오는 2016년까지 모두 1,435억 원을 투자해 공주와 홍성, 예산 지역 산업단지 등에 본사·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한다.

MOU 체결 기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우수AMS(주)로, 이 기업은 내포신도시 내 산업용지 3만3,000㎡의

부지에 오는 2016년까지 335억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신설한다.

지난 1983년 설립한 우수AMS(주)는 변속기 부품과 엔진 부품, 전기자동차용 부품 등을 생산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도는 또 국내 유망 기업들이 내포신도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2~3개 기업과는 조만간 투자협약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번 4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향후 4년간 1,718억 원의 생산유발과 1,508명의 고용창출, 72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9,548억 원의 생산액과 2,395억 원의 부가가치, 1,054억 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약속했다.

충남도, 정부 농산시책평가서 '최우수상'

- 3농혁신·쌀산업 육성 등 식량수급 안정에 기여한 공로 인정

충남도는 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도 정부 농산시책 추진 종합평

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1월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산시책 추진 종합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각 자치단체의 식량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쌀 안정생산 기반확보 쌀 경영안정 노력도 재해보험가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실시됐다.

충남도는 3농혁신을 민선 5기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면서 쌀 생산량 전국 1위, 10a당 생산량 전국 1위 등 적극적인 쌀 육성 시책과 충남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비처 확대 등 다양한 농산시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 전국 최초로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인삼·과수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한 점도 수상요인으로 꼽힌다.

도 관계자는 “도내 농업인, 유관기관·단체가 1년간 현장에서 기울인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최근 3년간 기상재해로 인해 국가 쌀 재고량에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올해 정부 농산시책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은 어느 때 보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광역 쌀 브랜드로 육성 중인 청풍명월 골드가 지난 9월 제7회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전에서 ‘대상’을, 11월 제16회 전국 고품질 쌀 평가전에서는 ‘은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등 쌀 산업 육성시책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도에서는 예산군 대흥마을이 친환경농업분야

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대한민국 과일선발대회에서도 태안군 안석원(사과후지)씨와 천안시 성만경(포도 거봉)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동’

- 전국 광역도에서는 처음...25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비전·전략·실천계획 등 마련 도정 기본 지침으로 활용키로



충남도가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도는 11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와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인권 정책이 생활 속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제정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할 계획으로, 도정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날 첫 발을 댔 연구용역은 충남 발전연구원이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수행할 예정으로, 우선 도내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또 국내·외 인권 행정 추진 사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찾고, '인권 행복충만 충남' 달성을 위한 비전과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농어촌-도시를 구분해 세부 실천계획, 도내 시·군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충남도민 인권 선언문' 작성 및 선포식 개최 방안도 제시한다.

이날 보고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원칙으로는 도민 삶과의 밀착성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접근 지역의 특수성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등 4가지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 제도 정비 인권 문화 조성확산 인권 거버넌스 등이 보고됐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계획 등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존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련씨 '수수리', 충남 전통주아카데미 품평회 최우수작 수상

— 충남 전통주의 6차산업화를 통한 정통성
이어갈 터



12월 23일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발연')이 개최한 "2013년도 충남전통주아카데미 품평회"에서 박정련(65, 충남 아산)씨가 빚은 '수수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우수상은 '이향주'를 빚은 이정숙(62, 충남 보령)씨, '사비향'을 빚은 김미희(57, 충남 부여)씨가 각각 차지했다.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이번 품평회에 출품된 전통주는 총14종으로 지난 6개월간 충남전통주아카데미 중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이 직접 개발한 전통주다. 품평회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7명의 평가와 일반참석자 50여명의 현장 투표로 진행되었다.

출품된 전통주는 순수하게 쌀과 누룩만으로 맛

을 내거나 지역의 특산물인 방풍잎, 구절초, 모시 가루 등의 부가적인 재료를 활용하는 등 그 깊은 맛과 향이 전체적으로 높은 평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기존 충남전통주업체 시음회와 아카데미 수료식을 비롯해 고창우리술학교 이상훈 교장의 “올바른 지역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강도 열렸다.

행사를 주관하는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우리지역의 전통주를 찾아내 복원하고 계승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며 “충남의 정체성과 문화성이 깃든 전통주의 의미를 계승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주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 2014년도 예산 97억2천만 원, 정원 10명 확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발연’)은 12월 13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발연은 연구원 이사진과 강현수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연구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직제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충발연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올해 94억2천만 원보다 3.18% 증가된 97억2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도 출연금은 44억 원으로 동결되었다.

또한, 충발연은 현재 51명의 정원을 61명으로 늘렸다. 충발연 이성우 사무처장은 “연구직의 양적부담을 덜고 부족한 연구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연구원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3차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충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행복과 안전, 충남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략연구과제의 수준향상과 대외소통, 연구협력네트워크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발연은 2014년도부터 ‘미래정책연구단’을 설치해 거시적 정책개발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행정복지연구부’를 신설하고 연구원 부설 센터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충남발전연구원, ‘농업 6차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토론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발연’)은 충남도 농업정책과와 공동으로 11월 27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농업6차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충발연 농어업6차산업화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농민과 소비자간 직접적 연결고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농업정책 분야와 직매장 꾸러미 사례부분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 정책분야는 충남도 농업정책과 유재룡 사무관이 <충남 농산물 생산자 직매장사업계획>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유선 차장이 <소

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건국대 윤병선 교수가 <꾸러미 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제2세션 사례분야는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이종진 상무가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충남농협본부 윤태욱 유통사업단장이 <일본 직매장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직매장 사업의 방향성>을, 홍성 전국귀농운동본부 금창영 이사가 <홍성 꾸러미 사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유학열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의 진행으로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안경자 대표, 공생공소 배연근 대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양배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김성훈 교수 등이 참여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토론시간도 가졌다.

“양적 성장 넘어선 행복 잣대 마련해야”

- 충남발전연구원, “2013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제컨퍼런스 개최
- 부탄, 중국, OECD 등 국내외 행복 연구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여



“진정한 행복은 맹목적인 물질적 추구에서 벗어나 가족·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자아실현, 여가와 문화의 향유 등 비경제적 가치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11월 22일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발연’)이 개최한 “2013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제컨퍼런스에서 충발연 고승희 책임연구원은 이같이 밝혔다.

민선 5기 충남도의 핵심가치인 ‘행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 국내외 ‘행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고승희 책임연구원은 “국내 행복연구는 국제적 연구노력에 비해 결과의 축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복지표가 GD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위의 측정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부탄의 ‘다쇼 카르마 우라’ 부탄연구센터장은 “부탄이 내세우는 GNH(국민총행복)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관련 정책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사람과 환경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하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자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OECD의 ‘코널 스미스’ 부서장은 “OECD에

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의 질과 이용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고 있다.”며 “주관적 웰빙에 대한 OECD 접근 방식은 삶의 만족, 감정 및 정서, 좋은 심리적 기능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기존 사회 변화 측정방식에 긍정적 영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운남성사회과학원 ‘장지에’ 부연구위원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시장주도 경제체제 구현과 개혁정책으로 이촌향도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라며 “중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대규모 도시 건설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도농 격차 완화를 통한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대담 진행을 맡은 충남대 박진도 교수는 “부탄이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그럼 부탄에서 살면 행복한가?”라며,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탄이 행복을 우선시하고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행복국제컨퍼런스는 중앙정부에서도 눈여겨 볼 만큼 ‘국민행복’이란 키워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선도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